

임기를 마치면서

부회장 강 정 구

2년 가까이 능력에 벅찬 부회장이란 직책으로 있으면서 우선 회원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만큼의 역할을 못 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작은 힘이나마 역할을 하도록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실천하려던 여러 목표중 첫번째인 회원 여러분의 불평을 많이 들어서 그것을 이사회에 회부하여 개선 시키려는 목표에 주력하려 했으나만 저 자신도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중 다음 집행부에게 부탁 한다면 첫째 대 지부관계에 있어 설득력있고 적극 협조 받을 수 있는 집행부의 역할과 보수교육 지침의 개정, 회원의 균 의료요원활용문제, 단독개설의 적극적 추진 활동이 미진한 지부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등을 들고 싶고, 끝으로 최근의 ACPT를 치르면서 신장된 우리 협회세를 볼때 가슴 뿌듯함을 실감 했습니다. 또 한가지, 차기 부회장에겐 일반 회원들께서도 「부회장」이란 호칭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이사 김 정 숙

며칠전 낙엽이 뿜구는 중앙청 앞길을 걸어보았다. 몇 년전이나 다름없는데도 많은 변화속에 세월이 흐른것 같다.

잊지않고 싶은 일, 잊고 싶은 일.

이 모든게 교차되어 착잡한 심정이었으니 말이다.

홍보이사를 맡은지 2년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되나 하다 반년이 지나갔고 일을 찾느라 반년이 갔고, 무언가 알것 같으니 1년, 그래서 2년이 지나간 것 같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고민하고 허덕이던 시간이 없었던 같기도하고 조금은 미약한 나의 능력을 몹시 속상해 하기도 하면서 활자화된 지면을 보면 기쁨으로 변했던 나의 변덕스러운 마음들... 돌이켜 보면 느긋한 여유와 배짱없는 나는 여자이기에 다행이라는 위안을 해본다.

A.C.P.T라는 큰 행사를 치룰수 있었던 것도 좋은 산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린시절 소풍전날 가슴설레던 기분이었으니까 말이다. '아는것이 힘'이라는 평범한 말의 뜻도 절감했고 넓고 큰 그리고 높은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협회가 되었다는 자부심도 느껴보았으니 말이다. 재미있는 여러가지 일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으니, 어느 여자 회원은 냉장고의 그득한 음식에 아! 호텔방이 이리서 다르구나 하고 먹어치웠더니 그다음날 날아든 계산서에 아찔해 하기도 했고 침대 씨-트를 걷어 덮고 자는 촌극도 연출해 가면서, 일년에 한번 입을까 말까한 한복을 입고 기상천외의 Disco를 추어봤으니 정말 잊지못할 시간이었던 같다.

그동안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정진우 회장님, 배승학 선생님, 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족인 협보책임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나의 숨은 힘이되어 주셨던 전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씩씩은 우리의 협회보는 여러 회원들의 아낌을 받으며 무럭 무럭 자라서 전 회원의 휴식처인 그늘을 만드리라 믿으며.....

직전회장 백 진

ACPT總會準備와 現 任員들의 努力의 結晶体로 協會 事務室도 마련된 지금 무엇보다도 時急한 것은 아무리 計算이 적더라도 事務室을 지키고 앉아 全會員의 손발이 될 事務局長을 會員中에서 有給으로 選任해야 하며 또 貳千名이 넘는 法人체다운 組織體의 構成입니다.

그리고 86, 88年度에 對備해서 스포츠PT의 養成과 아울러 體育部와 緊은 接觸, PT와 有關한 모든 學會와의 活潑한 交流, 醫療保險 請求問題나 免許試驗等을 통해서 PT의 自主性을 찾는 일, ACPT를 통해 會員여러분께서 切感하신 바와 같이 世界속의 韓國PT가 되기 爲해 世界의 어느곳에 내어 봐도 부끄럽지 않을 後輩養成을 爲해 獎學基金設定에 있어서도 代議員總會에서 萬丈一致로 決意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全代議員이 協會發展을 爲해 第一線에 나서려고 서로 다투는 時代가 빨리 오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복지이사 황 환 익

힘들었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시골마을 조그만 잔치도 치루고 나면 의례 칭찬 듣기는 어려운 법입니다만 이번 우리의 행사도 칭찬보다는 힐책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못해도 수고는 했습니다."라는 회원들의 힐책에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주먹구구식의 세련되지 못한 집행과정을 몸으로 부딪쳐야 했던 실정은 공사장의 인부에게 수고했다는 한마디나 다름바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었던 탓으로 돌리고 이번 경험을 밑거름으로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인일하게 대답하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향상 될 수 없는 실력이 문제이려니와 매사에 더욱 더 연구되고 검토되고 세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모두 인정하듯 영어실력이 다른나라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 명심하고 어학실력 부터 쌓고 봅시다.

회원여러분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